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보안원
FINANCIAL SECURITY INSTITUTE

보도	2023.10.5.(목) 10:10	배포	2023.10.4.(수)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디지털금융총괄팀	책임자	국 장	김부곤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안태승	(02-3145-7125)
	금융보안원 금융보안관제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영태	(02-3495-9300)
		담당자	팀 장	이신일	(02-3495-9370)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23.10.5.(목),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은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고예방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이하 ‘FDS’)을 자체 구축·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금융거래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금감원 및 금보원은 업계 T/F를 구성하여 ‘FDS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해 왔습니다.

※ [참고1] 그간의 T/F 논의 경과

- ◆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 및 주요 7개 은행과 함께 ‘22.12월부터 ‘FDS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 TF 실무회의(4회) 및 전체은행 실무자 간담회(4회) 등을 통해 FDS 적용범위, 운영 프로세스 및 주요 피해유형별 탐지조건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 [참고2] 「FDS 운영 가이드라인」의 성격

- ◆ 동 가이드라인은 법령·행정지도 등 금융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계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등을 취합하여 마련·권고한 것으로 금융회사의 가이드라인 적용여부는 회사판단의 자율사항임

동 가이드라인은 FDS 운영 전반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를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의 ‘이상거래탐지룰’(51개)과 대응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붙임 참고)

<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대상)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은행
- (적용 업무범위) 전자금융거래의 시작단계부터 수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전자금융거래 진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
 - 금융회사의 앱(App)상 인증서 등 접근매체 발급·갱신, 금융서비스 로그인과 같은 절차에서부터, 금융거래 지시·승인 및 서비스 로그아웃 절차까지를 포괄

<FDS 적용업무의 범위>



- (FDS 운영 프로세스) FDS 탐지기법을 통해 의심거래 탐지후, 이를 분석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
 - 은행 거래 데이터에서 ❶의심거래건을 탐지하고 ❷이상금융거래 여부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❸대응 절차를 수행

<FDS 운영 프로세스에 따른 데이터 변화 과정>



기대효과 ①

앞으로, 국내 은행업권에서는 주요 피해유형이 반영된 ‘이상거래탐지룰’이 공통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 개별 은행의 거래특징 등을 반영한 자체 탐지룰이 추가적으로 적용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효과 ②

특히, 유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별도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개통한 뒤 **ARS, SMS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관련 의심거래 시나리오에 의해 탐지 시 **아웃바운드 콜, 화상통화, 생체인증 등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하여 유관 피해 예방을 도모하였습니다.

기대효과 ③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악성앱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등 이상금융거래로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즉각 해당 계좌를 거래정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금융회사의 이상금융거래에 대한 조치 강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한편, 강화된 FDS가 적용되면서 이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 정지되는 일부 정상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속한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해제되게 됩니다.

금감원 및 금보원은 앞으로도 「FDS 운영 가이드라인(공동이상거래탐지률)」에 대한 업계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후 새로운 위협 발생시에도 그에 대한 업계 전반의 대응력이 향상되어 금융분야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FDS 운영 가이드라인」 적용시 예상 효과(예시)

구 분	피해 사례	적용 후
【본인 확인 강화】 휴대폰 탈취 / 대포폰 활용 대응	ARS 또는 SMS 추가인증 시, 본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기 확보자가 추가인증 통과 가능	IP가 해외이거나, 새로운 기기로 접속을 시도하여 의심거래로 확인되면 추가인증* 을 필수 진행 *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아웃바운드 콜, 화상통화 또는 생체인증 등을 적극 권고 [은행별 단계적 추진]
【스미싱 → 대출】 악성앱(원격제어) / 대출 연계	스미싱 사기문자 클릭후 악성앱 설치, 대출실행 후 타인계좌 이체	탐지률(악성앱 + 대출실행후 단시간내 타인계좌이체) 확인후 (자동) 거래정지 등 조치

※ 탐지룰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만 소개

- 시나리오 기반의 탐지조건으로 세부 임계치(값) 설정 등은 금융회사의 고객 및 거래특징 등을 감안하여 개별 회사별로 적용

시나리오 명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말기를 이용하여 짧은시간동안 특정금액 이상을 이체한 경우 탐지
피해사례	□ 공격자가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이용 단말기로부터 개인정보 획득, 별도 개통한 대포폰에서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뱅킹앱에 접속, 자금 탈취
탐지룰 및 대응 시나리오	<p>□ (의심거래 탐지) ①기존 미사용 단말에서 ②특정 금액 이상을 ③기존에 거래한적이 없는계좌로 (단시간에) 송금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탐지</p> <p>□ (확인 및 대응) ① FDS 탐지 이후, 고위험군으로 분류, 본인 거래 확인을 위해 추가인증 실시(아웃바운드콜) ② 특정 횟수 이상 전화 미수신 또는 통화 내용 상 사고로 판단될 경우, 전자금융거래 차단 등록 ③ 차단 통지 및 사고신고 접수 안내(SMS) ④ 사후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이상거래 정보 공유</p>
시나리오 명	미성년자 또는 고령자 보유 계좌에서 단시간 내 과거에 거래내역이 없던 계좌로 소액 다수 이체 탐지
피해사례	□ 신분증 등 개인정보유출 된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 계좌에 접근하여 평소 이체하지 않던 계좌로 다회 이체
탐지룰 및 대응 시나리오	<p>□ (의심거래 탐지) ①미성년자 또는 특정 나이 이상 고객 계좌에서 ②단시간 내 ③최초 입금 계좌로 ④특정 횟수 이상 이체 시 의심거래로 탐지</p> <p>□ (확인 및 대응) ① FDS 탐지 이후, 본인 거래 확인을 위해 아웃바운드콜 등 추가인증 실시 ② 추가인증 미실시의 경우, 거래차단(이용제한) 등록 ③ 차단사실 및 차단 해지 요청 방법 통지(카카오톡 및 SMS)</p>